

###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 그림 《가을밤》과 《4계절》

《이 그림들은 근대시기의 작품들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그림들은 옛날 화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특한 양상을 가진 현대화들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희강사는 해설을 이어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선은 강직한 일체는 우리의 민족미술을 말할하기 위하여 조선봉건국가미술기관이었던

도화서를 강제해산해버리고 반동적인 부르조아미술과 일본회화법을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도화서출신의 진보적화가들은 《서화협회》라

는 애국적인 미술조직을 내오고 조선화들을 창작하면서 후비들을 키워내고 조선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다.

그 나날 화가 리도영은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으며 산수화, 화조화, 정물화, 동물화 등에서 능란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화가인 그림 《가을밤》에서 검푸른 달그림자, 마가울 바람에 흔들리는 메마른 갈대, 인적없는 별판과 날아드는 기러기떼를 통하여 일제강점초기의 침울한 감정을 직관적으로 나타냈다.

묘사대상을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함축성있고 대담한 붓질로 생동하

게 그려낸 이 그림은 당시물풍기법의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당시 화가였던 김기창의 그림 《4계절》도 아주 이채로웠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계절에 따르는 조선옷차림을 한 녀성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그림은 조선옷과 조선녀성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새로운 종류의 조선화입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눈여겨보니 근대시기의 그림이었지만 마치 현대그림같았다. 특히 겨울에 그려진 인물의 옷단장이 칼칼했기 알려졌다.

조선화의 선명하고 간결한 화법, 힘있고 아름다운 필치가 숨배인 작품들을 볼수록 솔깃하고 명망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다.

본사기자 리철민



그림 《가을밤》

##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찬 조선어린이들의 작품들》

### 국제자선작품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 2023》 진행

지난 5월 로씨야의 크라스노야르스크시에서는 국제자선작품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2023》이 진행되었다. 공화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 어린이들이 창작한 수백점의 그림들이 여기에 출품되었다.

이번 축전에 처음으로 출품된 공화국어린이들의 그림들은 그 하나하나가 관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시행정부, 미술가동맹 등 로씨야 각계 인사들속에서 찬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말 훌륭하다. 조선어린

이들의 작품들은 부드러운 면에서도 정확도가 높은것이 특징적이다. 작품에 열정과 환상으로 가득찬 어린이들의 내면세계가 잘 반영되었다. 어른들도 이런 작품을 창작하기 쉽지 않을것이다. 《이번에 조선어린이들의 소묘작품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생활속에서 말로만

전달할수 있는 감정을 한쪽의 그림으로 보여준 그들의 능력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어린 화가들이 전문가나 다름없는 수준에서 창작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이 작품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수 있었다.》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찬 조선어린이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형언할수 없는 황홀함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작품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매 작품이 독특하면서도 주제가 명백하며 진실성이 강하다. 조선에서 교육자들이 어린이들을 다재다능한 인재들로 키우고있다는 것을 이번 축전을 통하여 잘 알게 되었다.》

《축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체감해보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뜻밖에 알게 된것이었다. 조선의 미술교육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따라배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시기 크라스노야르

## 뛰어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장시약수

장시약수는 강서구역 약수리에서 솟아나는 탄산-수소탄산염천이다.

강시약수에는 칼슘, 마그네슘, 수소탄산나트륨, 칼륨, 염소 등 이온화된 다양한소금과 철, 망간, 니켈, 동, 아연, 불소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이온화된 미량원소들이 인체의 흡수율이 유리한 상태로 필요한만큼 들어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소파관의 분비 및 흡수, 운동기능을 높이고 열물형성 및 배설을 촉진한다.

장시약수는 물질사를 개선하고 조절기능을 높이며 만성저산성위염, 만성대장염, 동맥경화증, 비만증, 당뇨병, 만성기관지염 등의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자연치료인자로

인정받고있다. 강시약수는 식사하기 30분전에 마시는것이 좋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강시약수는 그 맛이 썩고 독특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2022년 최우수발명가상수상자들 (1)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실장 석영범



신민주화장품공장 탐향기연구소 부소장 김흥원



자강도지방건설건축재관리국 강계건축시험소 소장 김입철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실장 석영범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에너지시스템특장동》, 《자원의외부이용조명장치》를 비롯한 국가적의가 있는 여러건의 발명을 한 재능있는 과학자로서 박사, 부교수이다.

그를 비롯한 조명기연구집단이 개발한 먼거리조명등은 많은 단위들에 도입되었으며 높은 리튬제조효과와 조형예술성을 보장하면서도 수명이 길며 전기도 훨씬 적게 쓴다고 한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 문헌들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이바지하는 조명등도 새로 개발도입하였다. 신민주화장품공장 탐향기연구소 부소장 김흥원(공훈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은 최근 5년동안에만 하여도 화장품생

산의 국산화비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여러건의 발명을 하였다. 그 가운데는 세계지적소유권 기구(WIPO)의 발명가네달과 중사를 받은 《블로초베양물과 그를 리용한 로화방지영액》도 있다.

그는 새 제품개발과제책임자로 사업하면서 주요화장품 원료들인 천연보세, 미백제, 로화방지제, 자외선방지제 등을 개발도입하였다.

여러가지 종류의 기능성코립과 살결물 그리고 《장식물이 들어있는 투명비누》, 《천연머리카락염색제》, 《비듬제거효과를 가지는 샴푸의 제조방법》 등 수십건의 발명을 하였다.

자강도지방건설건축재관리국 강계건축시험소 소장 김입철은 지방의 원료천천들을 리

용한 콩크리트피막양생제와 콩크리트경화촉진제, 여러가지 기능성칠감 등 기술적특성이 좋은 각종 마감제들을 개발도입하여 삼지연시를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훌륭히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 하였다.

그가 어느한 단위에서 나오는 침전제물을 리용하여 만든 특색색감은 종전의 마감제에 비해 색보존기일이 오래고 자재소비를 크게 줄인것으로 하여 국가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었으며 강계시안의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에 도입되었다. 그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새롭게 연구한 마감제들을 도입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7월의 절기에는 여름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 큰 더위가 있다는 대서가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소서때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데 맞게 김매기를 따

대서를 전후 하여서는 주로 다음해에 쓸 풀거름을 장만하였다. 7월에는 한해중에서 제일 무더운 삼복중에서 초복과 중복이 있다. 우리 선조들은 무더운

삼복철에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대표적으로 단고기장, 초계탕, 팔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단고기장물은 발등에 열이 어저도 약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복날에 조밥을 단고기장에 말아먹으면서 땀을 폭 내는것을 으뜸가는 몸보신으

## 7월의 절기와 민속

로 여겨왔다. 더위로 하여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 식욕을 돋우고 영양을 보충하며 온갖 병을 예방한다. 삼복철의 단고기장은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워졌다. 올해의 소서는 7월 7일, 대서는 7월 23일이다. 그리고 초복은 7월 11일, 중복은 7월 21일이다. 본사기자

### 민요 《모란봉》의 창작유래

삼을 질렀다. 가려했던 전쟁으로 재더미만 남았던 평양에서 수많은 새집들이 일떠섰던것이. 한껏 흥이 오른 김진명의 장고소리와 김관보의 찬찬한 민요가락이 울려나와 모란봉의 여름정서를 한껏 들구었다. 그런데 놀이에는 별관심이 없이 올밀대간에 기대어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던 조영철이 빨리 내려가자고 재촉하였다. 그는 집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김진명에게 올밀대에서 쓴 가사를 내놓으며 폭을 불

어보라고 하였다. 김진명은 즉석에서 장고를 두드리며 흥을 돋구어 가사에 선율을 붙여나갔다. 이름있는 작가와 두 명칭의 모란봉들늘이는 결국 가사와 선율다듬기로 이어졌고 마침내 민요 《모란봉》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민족의 향취,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충만된 민요 《모란봉》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널리 불리워졌으며 국보적인 민속음악유산으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 평양 평면

메밀을 국수감으로 쓰는 평양평면은 국수오리가 지나치게 절기 않고 먹기 맞춤하며 구수한 향기와 맛을 내는것으로 하여 인기가 높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본음식감으로 메밀가루 105g, 쌀가루 80g, 돼지고기 45g, 소고기 80g, 무우김치 40g, 배추김치 40g, 배 15g, 무우 40g, 파 5g, 맛 2g, 고기국물 200ml, 동치미국물 100ml, 고추가루 3.5g, 간장 16g, 사랑가루 1.5g, 겨자장 3g, 식초 20g, 증조 3g, 소금 11g, 맛내기 3g를 준비한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무우와 함께 5배정도의 물에서 삶아 익힌다. 볶기 시작하면 겨자와 기름을 걸어낸다. 국물에 간장, 소금, 맛내기를 두고 색과 간을 맞추는 다음 삶은 소고기, 돼지고기는 길이 4~6cm, 너비 1~1.5cm, 두께 0.2cm 되게 썰고 닭고기는 굵직 굵직하게 썰는다.

배는 껍질을 벗기고 두께가 0.3cm 되게 버들잎모양으로 썰어 얇은 소금물이나 사탕물에 잠겨놓는다. 메밀가루와 농마가루를 채운 다음 겨우살이 45% 되는 더운물(여름에는 60~65°C, 겨울에는 70~80°C)에 증조를 풀어두고 반죽기로 반죽한다. 반죽물결면에 물을 바르고 국수기에 넣어 국수를 누른 다음 삶는 물에서 1.5~2분 정도 익힌다. 이것을 조리로 건져 찬물에서 3회정도 씻은 다음 사리를 지어 물기를 짜낸다. 국수그릇에 국수사리를 추려담고 우에 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이, 배, 삶은 닭알을 얹는다. 여기에 차게 식힌 고기국물과 동치미국물을 섞어 붓고 갖을 띄워낸다. 냄 때 간장, 식초, 겨자장을 곁들인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 사화

## 썩떡에 깃든 사연 (2)

글 김정희, 그림 채대성

그런 속에서도 솔메는 남편의 수탈에 잘 적응해 내는 약재를 캐다가 떨어져 일을 어느 하루도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병세는 별로 달라지지 않자 고민은 더 악화해 갔다. 솔메는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듯 아왔다. 더구나 요즘 다시 외척들이 쳐들어와 썩떡마을장정들모두가 싸움터로 달려나가는 때에 땀뻑하게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지 못하는것이 죄스리위 솔메는 이웃들 보기가 몹시 괴로웠다. (하루빨리 남편이 병을 털어버려야 전장에 나갈수 있겠는데, 아직 내 성이가 하늘을 감동시킬만큼 크지 못한 모양이야. 이젠 무슨 약을 써 봐야 할까.) 솔메는 자나깨나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느날 솔메는 고개너머에 있는 천정집을 다녀온 이웃집녀인에게서 속병에 썩이 좋은 말을 전해듣고 썩을 뜯어다 남편에게 달여주었다. 썩물로 한 열흘간 치료해보니 약간 차도가 보이는듯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썩물에 큰 기대를 가졌던 솔메는 실망하고말았다. (썩물에 혼하디혼한게 썩인데 그게 무슨 약이 되려.) 이렇게 생각한 솔메는 다른 약재를 얻기 위하여 여러곳으로 뛰어다녔다.

어느날 솔메는 새벽이슬을 맞은 10년묵은 산삼을 캐다가 풀에 푹 재워먹으면 속병에 직효라는 말을 듣고 새벽이슬을 헤치며 마을뒤에 솟은 달맞이산으로 올랐다. 험한 벼랑길과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관을 오르내리던 솔메는 수림속에 햇빛이 비쳐들기 시작하자 산삼을 한 뿌리도 캐지 못한채 산을 내리내렸다. 솔메가 산속을 벗어나 평평한 들에 이르니 거기에는 과연 잔디가 비단필처럼 펼쳐졌는데 그속에 다문다문 민들레와 썩대들이 돌아있었다. 풀밭에 아침햇빛이 눈부시게 비쳐서인지 잔디들은 기묘한 무늬를 수놓으며 두눈을 자극하였다. (무엇이 이렇게 나른해지는가?) 솔메는 온몸의 맥이 풀리는것을 느끼며 잔디위에 쓰르르 주저앉았다. 솔밭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솔메의 귀머리칼을 스치며 얼굴을 잔지럽혔다. 아침이슬을 맞아 푹 젖었던 옷자락에 맑은 햇빛이 비치자 솔메는 가슴이 훈훈해지기 시작하였다. 마치 포근한 이불속에 든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며 솔메는 저도 모르게 살면서 눈을 내리잠갔다. ...



들여다본다. 풀에는 두어자가 넘게 자랐는데 어긋치며 뻗어나간 가지에는 짙푸르짙푸른 잔디들이 다문다문 돌아있었다. 과연 잎새들은 바람결을 따라 보르르한 흰 털이 덮인 뒤뭇뭇 살짝 드러났다 감추었다 하며 제모습을 자랑하는듯하였다. 《정말로 고칠수 있소이까?》 《암, 고치구 말구. 병을 떨고 장수가 될수 있으니 내 말대로 해보아라.》 《신선할아버님! 정말 고맙소이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솔메는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 일어섰다.